

제 12과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성경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인데요.

1년 365일을 늘 믿음으로 살으라고 해서 믿음장 365페이지에 해놓으신거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뭐 꺼다 맞추어 놓은 말이지는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9 = 27 신구약 성경 숫자, 39 = 27도 우연 아니더라고 생각을 해본적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도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절,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대에 순종하여 장래 가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줄 앎이라”

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은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9절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번 아브람을 부르심 이렇게 돼있죠. 예상치 못한 부름 이렇게 돼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가로 분산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탐을 쌓았던 그 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우리의 부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정당화 할만하고 내세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나와 있는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다 찾지 않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돈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해가 그늘에 비취어서 환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우리 부름받기 전에 모습이죠.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 “금훔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6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위치와 신분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고생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평생 지은 것이 죄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도 봅니다.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지혜도 없고 뭐 능하지도 않고 뭐 문벌도 좋지 않고 그 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그들을 전혀 부러워 하지 않고 당당하게 즐겁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2번에 1번에 2번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돼있죠. 찾아보죠 사도행전 7장 2절

2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 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떠났는데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람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셧습니다.

장래의 기업에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믿을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브람함에게 보여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했겠죠. 그리고 그 복,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내세 전국을 들어가는 복을 아브람함이 미리 보았다면 그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본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능력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온 우주를 다 보여주셨죠. 우리가 친히 우리를 위해 주신거죠.

나를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 나를 위해서 지금 이 건물이 존재하고,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는거 죠.

내가 없다면 이 온 우주는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그 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나를 그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 주신 것이고,

특별히 우주만물가운데 그 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말 진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 던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죽어주셨 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전에 화목이라는 거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배웠는가요.

화목은 두 사람간의 원수지간에 화목되는 것이 아니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향해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돌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편에서 자원 재물로 와서 연결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재 물이 되어주신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원한 사랑이었어요.

원래 화목제라는 것 자체가 의무제사가 아니고 자원제사거든요. 속죄죄는 의무제 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화목죄라는 것은 하나님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낸 표시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신거예요.

오신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32 “자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주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했는데, 못 줄게 뭐가 있겠어요. 다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일일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전국과 영광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보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말씀보고 따라 간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친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발견하고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신 목적,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늙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에 하신 이러한 약속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것이 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될거다라고 믿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된거죠.

자 복음을 약속하시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 지시할 땅 가나안 땅,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 땅에 모든 족속에게 미치는 복의 약속은 예 수그리스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을 친히 증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된 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 듣는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니깐 정말 놀라운 이치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람 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람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데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찾아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1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르고 주셨습니다. 사실 떠낸 반석이다라고 하

는건요.

캐낸 그런 곳에서 잘라낸 볼품없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묵한 웅덩이도 별볼일 없는 거잖아요.

별볼일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웅덩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나 중에 하나님앞 에 가서 받게 될 복은요.

비교조차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개전에서 용난 거죠. 그쵸

이 세상이 개천 ... 그보다 못하거죠. 사실... 거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용보다 더한거죠.

지옥갈 운명에서 전국갈 운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진거니까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 보다 어찌보면 예수님을 직접 믿어서 구원 얻게 되었으니까.

사실 굉장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 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최종적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냐면 현재 생활은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가자마자 복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당대에 땅과 민족과 복을 받은 것도 역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 문에 그렇게 미래적인 관점도 현재적인 관점으로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영화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가장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는 때가 지금일 수 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결론난건 아직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성육신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 가 없었어요.

그 수세식 화장실에 가득한 구더기들을 위해서 내가 그 구더기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그 구더기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이 안가잖아요.

그 구더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처형당했다.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살아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 나를 잔인하게 처형시킨 그 구더기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들을 변호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당장 약뿌려... 당장 물어... 그러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거룩 그 자체이신분이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곳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이라는 증거를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한번 봐봐

살아나면 너넨 죽었어... 이제...

그래서 다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승천하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 인간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면서 이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저기 갔었어 ...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다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식이 진짜 말 안듣고 속석일 때... 내가 너를 낳으려고 이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잖아요.

그니깐 그 부모님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녀가 상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자기가 쪽쪽 빨고 있는 아이스크림, 사탕 하나를 사기 위해서 부모님이 고생한다는 거 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밤새 끔끔 알으면서 막 토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밤새 줄거라는 것은 애들이 상 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전혀 예상을 벗어나 사랑이에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그렇고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은 사실 그것보 다 더할 겁니다.

그거보다 기대가 되죠.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봅니다.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장차 강한자로 임하실 때에... 그러면 상급받기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앞에 9절에 나오죠.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요것만 보면은 가능할꺼 같죠.

산을 오르고 소리를 높이라~ 외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인데 ...

그 뒤에 보면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도 있죠.

두려워 말고 ... 왜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죠.

소리를 높여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할만한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호받고 있을까?

내가 이 위험속에 있는데.... 내가 내일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때에 상급을 주신다. 주님이 지금은 네가 올라서 소리를 높이며,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외쳐라...

두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높이 올라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외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상급을 주실거다.

그리고 너를 두렵게하고 핍박하고 곤란하게 했을 그들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될까요. 안될까요. 위로되죠. 애들이 막 싸우다가 너네 너 있다가 우리 아빠오면 너 죽었어... 막 그러잖아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너 까불면 엄마한테 이른다. 그렇게 하면은 든든하잖아요. 내가 얻어 터지고 가도요. 나중에 아빠오면 괜찮은 거예요 터져도...

뒤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11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 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양무리를 먹이십니다.

어린양을 철철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좀 큰애들은요. 걸어 다니잖아요.

어린애들은 어떻해요. 어떻해서든지 안고 업고, 철철하게 보호하잖아요.

어린이들을 보세요. 바람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감기들을까봐 뽁뽁 무장을 해서 그냥 싸메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팔이 어떤 팔입니까?

주님 팔이 그 능하신 전능하신 주님팔이 대단한 팔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편팔로 애굽에서 보호하여 끌어내신 팔입니다

대단한 팔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현재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장차 주님이 강한자로 임하실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현재 세상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산을 오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 21절까지 같이 읽어 봅니다.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소개를 하고있습니다.

더 넘치도록 하실수 있는분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사는거요. 사실 보람있는 겁니다. 보람있는거예요.

출애굽후에 광야생활의 결과도 복을 주려 함이였습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16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광야생활을 통해서도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복을...

가나안이..그 광야가 최종 정착지가 아니구요. 최종정착지가 어디죠?

가나안땅인거예요. 가나안땅...그것을 주실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보다는 가나안에 훨씬 좋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광야가 가나안처럼 좋으면 가나안에 가겠어요. 안가겠어요. 거기 뭐하러 가냐. 여기 눌러살지...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간..므낫세 반지파라는 건 므낫세를 반쪽 쪼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므낫세 반쪽은 이쪽에 있고, 반쪽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반쪽... 그 쪽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했잖아요. 우리가 쪽수도 많고...짐승도 많은데 굳이 불편하게 저기까지 않넘어갈란다. 주님은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서 그냥 정착한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북쪽에서 적이 공격하면 맨날 첫 번째로 터지는 거예요.
 먼저 우선 터지는 거예요. 계속...
 안좋겠죠...육신의 선택은 그에 따른 보응이 있어요.
 자 썰렁한 이야기이지만 광야가 가나안처럼 좋았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을 사모
 하겠어요.
 그냥 눌러서 여기 살지...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고달픈 삶을 산다라고 하는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소망을 뚜렷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몸 허약하면 건강한 삶을 원하잖아요.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더 원해요.
 눈물을 썩 빼면서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요. 주님이 닦아줄 그 때를 더 생
 각을 하는 거예요. 생노병사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더 있으면요. 그쵸. 불노불삭
 의 영원한 천국이 더 그리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육체를 가진 그리스도
 인들에게 여전히 죄성을 허락하고
 그 자체를 없애지 않고, 죄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죄가 없는 세상...죄의 존재자체
 가 없는 그 세상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려고 지금은 죄의 세력과 계
 속 다투고 있는거예요.
 죄의 형벌은 벗어났습니다. 죄의 세력과 갈등이 이세상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죄의 존재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 공과공부하기 힘들죠. 주님앞에 가면 공과공부 하겠습니까?
 그때 분반애들 없을거예요. 그쵸...
 얼마나 좋겠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서 교제합시다. 이런거 없을 겁니다.
 주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종적입니다. 아직 이세상은 끝나지 않은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최종적인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면...우리도 여전히 그럴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행함 이렇게 돼있는데요.
 자 1번입니다. 3번에 1번...
 순종을 위해서는 믿음이 중용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돌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예화에 그 내용이 나와있으
 니까 머리돌 읽어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을...오타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은 순종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증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은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나중에 창세기 22
 장에 독자 이삭을 받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고, 다른 사람이 봐
 도 흠잡을 만한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더 드러났던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거죠. 그래서 전쟁터는 용감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을 만드
 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죠.

막상 전쟁이나면 용감한 사람은 그 용감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비겁한 사람은 비겁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전쟁 자체가 그걸 만드는데 아니에요. 전쟁 자체가....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내 시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믿음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다듬어지고 있다면,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그동안 쌓아왔던 내 믿음의 공력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래서 평상시에 맨날 몸을 단련하고 그러면... 어떤 그대에 그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보신분은 낙법이라는 것 아시죠.

낙법...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데서 떨어져도 안다치게끔...누가 때리거나 어디 걸렸을 때, 넘어졌을 때... 보호하는 방법인데 평상시 연습 한번도 안하다가 갑자기 낙법으로 떨어질 수 있는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연습을 하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늘 몸을 보호하게 되는거죠.

우리 하루 하루의 신앙생활이 그런겁니다. 위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날건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은 어느 한순간 잘해서 그런 것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런 삶속에서 늘 그런 흔적을 보이면서 살아왔고, 뒤끝이 좋았다라는 거죠.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지금 말하는 빌게이츠 회장...예를들어서...

지금 부자지만 나중에 주식폭락하고 회사 망해가지고 쫓딱 망했다 그러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렵게 계속 살다가 나중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3번에 2번 순종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는 순종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이렇게 돼있죠. 지금도 마찮가지지만... 고대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죠.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어려움 등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내 뒀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에서 아무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훌훌 단신 혹은 별로 준비한거 없이 떠난다~이러면은 참 주변에서 말릴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모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과 우리의 길을 비추어줄 성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더라도 안심하고 위험하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내가 결박되는거 봤습니다.

막 말렸잖아요. 그럴때도 말하빈다. 주님은 주님이 함께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이미 죽을걸 각오했다라고...죽을걸 각오하고 나아가는 걸음에 뭐가 두려울게 있겠어요.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23절...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나아갈려고 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울게 없는거예요. 두려울게...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1장 13절...

12절은 이제 막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13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네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데, 왜 울어서 내 마음이 슬프게 답답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맡긴 사명...내가 가야될 그 길을 끝까지 가기전에는

어떤 위협도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랑만난 그 발울도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죠.

뱀이 물었는데도 즉시 죽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죽었죠.

왜냐면 바울은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광야에서 죽을뻔했잖아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죽을뻔했는데... 엘리야는 아직 길이 남아있었어요. 할 일이...

그래서 굶어죽을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먹을 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가 남은 사역을 다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 당시에는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는 것으로만이 그가 일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약시대 우리에게 좌절한 사람에게도 절망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그의 잠시후가 큰 영광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거예요. 그죠.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 아브람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 욕망을 추구하다 살다간 평범한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선택에 관한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순종을 해야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고통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은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미소로 이겨낼 것입니다.

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 의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 대한 대가가 치러집니다.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봅시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기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애매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치러야할 대가였죠. 히브리산파 십브라와 브와...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는데,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을수도 있다. 바로에게 ... 그 대가를 치른겁니다.

모세...바로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부와 장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함께 고난 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찮가지죠. 숨겨두면 죽는다. 죽을수도 있다라는 대가를 치른겁니다.

사실 정탐군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죽을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한 겁니다.

그 대가가요. 쉬운게 아니예요. 그래서 아브람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동일하게 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친 믿음하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하고 기생 라합의 정탐군을 숨긴 믿음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두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여서 그의 믿음이 죽일려고 하는, 제물로 드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믿음이 드러났고, 기생 라합은 내가 죽겠소. 내가 죽을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믿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엘리야도 대가를 치렀죠.

아합과 타협하지 않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엘리사도 역시 마찮가지였고, 갈리리의 가나안 어부들도 역시 마찮가지였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라는 엄청난 부를 놀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린거죠.

누가는 어떻습니까? 총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부와 명성을 다 포기한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중에서도 장이죠. 장급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들, 모욕들 그런 부분들을 대가로 치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래도 그는 감수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테바나의 집도 역시 순종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면 더욱 큰일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잠시 잠깐의 고난을 택하는 것이 세상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올바르지 않은 선택도 보여준다는 거죠.(46:39)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인류가 고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잃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비록 가죽옷을 입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서...팔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인데...

고라당...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적했죠.

모세를 대적한거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아간...좋은 옷 입어보야 얼마나 입겠어요? 광야에서...아니 그 가나안땅에서 입어봤자.

다른 사람들도 그거 다 어디서 났는지 물어볼거 아니에요?

결국 들통날 것을... 기껏해 봐야 자기 집안에서 밖에 더 입겠어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겁니다.

자 바라바를 선택한 이스라엘민족도 어리석죠?

데마...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선택할거냐? 바울쪽..예수님쪽을 선택할거냐?

세상을 선택할거냐의 결국 인생말년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직막판에 막판에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 그거 몇푼 꿈쳐돌려고, 비상금 마련할려다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비상금과 바꾼거죠...

예수님앞에 나온 부자 청년도 좋은기회를 얻었지만, 돈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였죠. 오늘밤에 내가 죽을 줄 모르고 재물을 쌓아 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대신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곧 그들 앞을 떠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상급을 위해 주님앞에 올바른 신상의 길을 걷는것보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영원히 후회할만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장막생활과 단을 쌓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아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장막생활을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막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인가 그랬으니까...175세에 죽었으니까..
 약 100년정도 장막생활을 한겁니다.
 장막생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잘 설명해줍니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은 장막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조그만한 집에서 어렵게 살아도 나중에 분양받은 집으로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100년의 장막생활...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생활입니다.
 비교도 안되죠. 그러니까 100년도 해볼만한 삶이고...에녹은 300년 동행했잖아요.
 해볼만한 삶이었죠.
 100년도 가능했고, 300년도 가능했다면...우리는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한 100년..헤헤~~
 우리는 더더욱 짧은 인생입니다.
 더더욱 짧습니다.
 해볼만하지 않겠어요. 해볼만...그죠.
 단을 쌓은 아브라함 되어있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한 다음 제일먼저 한 것은 하
 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여행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에 단
 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곳곳에 쌓은 단으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또 그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단을 쌓잖아
 요.
 처음에 쌓았던 곳에서 또 단을 쌓았습니다.
 아니 한번 쌓으면 되지 뭐 또 쌓을 필요 있냐고..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옛날에 잘했으니까 ~ 지금은 필요없다.
 우리는 늘 현재적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짐승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산제사사로 드리는 흔적을 계속 남겨야 될겁니다.
 5번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진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편에서도 사람편에서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결국 그냥 살기를 원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무의미한
 삶이 되었을 것이며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큰 축복을 받은것이며, 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가장 적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 있으세요?

예 있어야죠...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장차 받을 끔찍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게 딱 한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앞으로 우리가 짧은 인생 살텐데요.

그 짧은 인생 남은것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결과가 뒤에 약속이 없으면 참 허무할겁니다.

뭐하러 그래요. 왜 그래야 되죠?

반문할 수 있을겁니다.

보상이 뭐가 있죠?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어도 되는 거지 뭐~~

그쵸.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처지로 내몰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죽도록 충성하는 그 순종에는 반드시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적으로 늘 부르십니다.

하루 하루 날 부른겁니다.

예전에 불렀고 그 상태가 유지되지만, 사실은요. 저를 매일 매일 부른겁니다.

여러분의 매일 일상가운데, 주님은 초대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현재적으로...늘 지금 충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루 하루 귀하게 살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늘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